

신자유주의와 감성

감성총서 25

신자유주의와 감성

인 쇄 | 2018년 6월 12일

발 행 | 2018년 6월 15일

저 자 | 정명중

발행인 | 정병석

발행처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등록 | 1981. 5. 21. 제53호

주소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화 | (062) 530-0571~2 마케팅 530-0573

팩스 | (062) 530-0579

홈페이지 | <http://www.cnut.co.kr>

이메일 | cnup0571@hanmail.net

값 12,000원

ISBN 978-89-6849-509-0 (93810)

이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한 것임(NRF-2008-361-A00006).

신자유주의 와 감성

— 정명중 —

우리는 유리처럼 나약해
곧잘 깨져서는 서로를 할퀴네
절망처럼 검은 밤이면
서로의 체온 속을 파고들면서도
— 김운아 「유리」 중에서

이 책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관한 치밀한 분석서나 이론서가 아니다. 대신 신자유주의 체제가 오늘날 생활세계에 남겨 놓은 심각한 감정적 폐해와 상흔을 추적하고 기록한 일종의 보고서라고 해두자.

총력전total war과 흡사한 무한경쟁의 이념을 앞세워 신자유주의 체제는 유동성과 유연성 그리고 혁신과 계발의 미덕을 우리들에게 집요하리만치 다그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천만한 ‘무無사회’ 상태로 주저앉고 말았다.

게다가 경쟁에서 밀려난 술한 루저loser들이 좀비 떼처럼 곳곳에서 창궐했다. 그들은 잉여redundancy로 취급되거나 때로

는 내부의 악령 노릇을 떠안은 채 사회에 불안과 우울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비루한 루저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증오와 원한의 감정이다. 책을 관통하는 핵심어 두 개를 꼽는다면 역시 증오와 원한이다.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오늘날 온갖 혐오의 감정들, 이를테면 젠더혐오, 인종혐오, 계급혐오, 세대혐오, 소수자혐오 등의 근원적 토대라고 판단한다.

사회를 그 뿌리에서부터 좀먹어 가는 증오와 원한의 감정을 해소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일까. 그러나 책에서 그 근본적인 해법 같은 것을 제시하지 못해 유감이다. 다만 다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인 취약성(vulnerability)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곧 완전성에 대한 불합리한 이상을 접고, <의존성=수치>의 도덕관념을 효과적으로 떨쳐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기배려와 타자성(공유성)의 윤리가 함께 실현되는 ‘공감(共感)의 장場들’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아직은 공소한 당위적 주장처럼 보인다. 마땅히 주장의 실천적·정치적(윤리적) 근거들을 더 면밀히 살핀 다음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가다듬었어야 했다. 안타깝지만 미진한 부분은 훗날의 과제로 남겨둔다.

지난 10년간 감성인문학 Emotion-Humanities이라는 전인미

답의 영토를 그야말로 헤맸다. 좌고우면 와중에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겨냥하거나 내심 염두에 둔 글만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내세울 게 없다. 그러나 나름의 진정성과 문제의식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천착한 결과물이라고 스스로 위안해 본다.

감냥이 미치지 못함은 두고두고 부끄러울 일이다. 다만 이 부끄러움조차 앞날의 공부를 위한 자양분이기를 감히 소망한다. 이 자리를 빌려 집단지성의 가능성과 힘을 동시에 일깨워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의 모든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6월

정명중